

01월 0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01월 0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경기부양 기대 [다우: 9,015.10pt (+ 0.69%)]	뉴욕증시가 6일(현지시간) 하락 하루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음.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새정부가 추진할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지수 상승에 도움을 주었음. 서비스 경기지표가 기대치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상승세를 뒷받침 하였음.
오바마 정부 경기부양 기대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전날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경기부양책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음.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전날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경기부양 규모는 7,750억달러에 달했고, 부양책에는 1인당 500달러, 가구당 1,000달러를 지원하고 기업들에겐 소득공제를 최고 5년까지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서비스지수 뜻밖 호조	미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작년 12월 서비스(비제조업) 지수는 40.6%를 기록해 전월(37.3%)은 물론이고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음. 반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작년 11월 잠정주택 판매지수는 전월대비 4% 하락한 82.3을 기록했고, 이같은 감소폭은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의 전망치인 1%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치임.
유가 50弗 찍고 반락 [WTI: \$48.58 (-\$0.23)]	국제 유가가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로 나흘만에 하락세로 마쳤음. 그러나 장중에는 중동 사태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실현 등으로 5주만에 처음으로 50달러선을 넘어서기도 했음.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2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3센트(0.5%) 하락한 48.58달러에 마쳤음.
日 작년 해외기업 '사냥' 역대 최대	일본의 기업들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대거 해외 기업 '사냥'에 나서 지난해 해외 기업 인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마루베이나 이토추 등과 같이 현금이 많은 일본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엔고(高)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해외 기업들을 사들이는 사냥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
日, 40개 지방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일본 금융청이 주가 하락과 경기 악화로 재무상태가 악화한 지방은행에 우선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
유럽 천연가스대란 현실화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분쟁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 양측 분쟁 엿새째인 6일 불가리아와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가스 공급 부족을 호소.

제목	주요 내용
中 위안화 기축통화 시동	중국 국무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 주요 수출기지인 광둥성과 양쯔강 하류 산업단지에서 홍콩·마카오와 거래할 때 위안화로의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힘. 또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중국 서남부 광시 및 윈난성 기업들이 무역을 할 경우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쓸 수 있도록 함.
현대·기아차, 지난해 美 선 `울고` 中선 `웃고`	6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의 지난해 판매실적은 40만 1,742대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1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아차 역시 지난해 판매량이 27만 3,397대로 전년 동기보다 10.5% 감소. 현대·기아차 측은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 위축과 대출 여건 강화로 미국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됐다"며 "미국의 연간 자동차 수요가 지난 2007년 1,614만대에서 지난해 1,200만대~1,250만대로 약 22%~2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반면 중국시장에서는 현지 전략차종들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남. 현대차의 중국현지법인 베이징 현대차는 지난해 29만4508대를 판매하였으며, 이는 전년의 23만1137대에 비해 27.4% 증가한 것. 기아차의 중국 합작법인 동평위에다가아도 14만 2,008대의 판매실적을 올려, 전년 10만 1,427대에 비해 무려 40.0%나 늘었음.
조선 빅3, 올해 수주목표 '고민 또 고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체 빅 3가 올해 수주목표액 설정을 두고 고민에 휩싸임. 글로벌 경기침체로 선박발주가 감소한 것은 물론, 신조선가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예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때문.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올해 수주목표액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수주 목표를 100억 달러대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175억 달러 보다 대폭 낮아진 것. 그러나 조선 관계자는 "다만, 대형 조선업체의 경우 이미 3~4년치 물량을 이미 수주해둔 터라 매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
롯데칠성, 두산주류 5천억에 인수 본계약(종합)	롯데칠성 음료가 두산의 주류사업부문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소주시장에 진출, 종합 주류회사로 거듭남. 롯데칠성음료는 두산주류를 5,030억원(비영업자산 포함)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롯데칠성은 매수 자문사인 KB투자증권과 협의한 후 3주간의 실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대금을 정산하고 최종 인수를 마무리 할 예정. 롯데칠성이 위스키·전통주·맥주 유통사업에서 소주사업까지 확대하며 `하이트-진로`를 위협하는 종합주류회사가 됨에 따라 주류업계 지각변동이 본격화 될 전망. 현재로선 당장 진로와 시장 점유율에서 차이가 크지만 롯데의 브랜드 파워로 진로에 적잖은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롯데가 오비맥주 인수 가능성도 있어 주류시장의 2강 체제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